

# 자 기 소 개 서

## ■ 성 장 과 정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적 말수가 적었으나 별명이 '태릉 소녀'(태릉선수촌)로 불릴 만큼 체육을 잘 하였습니다. 홈스쿨링으로 학업 성적도 뒷받침 되니 부모님께서도 항상 믿고 지켜봐 주셨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심신의 건강을 위해 복싱, 암벽등반, 헬스를 꾸준히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원동력으로서 새로운 일에도 도전하고 집중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저는 몰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앞으로의 인생을 고민하던 차에 변리사 선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공부는 커리큘럼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기가 하나에 몰입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고시의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고, 동시에 청소년 시절 장래 희망이었던 변리사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합격 여부를 떠나 인생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열정으로 수험생활을 의미 있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경지에 오른 사람의 말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운 길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Easy come, easy go 라는 속담이 있듯이, 어렵게 얻은 것일수록 더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졸업을 했다면 특정 분야의 변리사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전공인 지구환경과 더불어 전자산업분야의 발명 및 인공지능이 적용된 발명을 이해하고자 전기전자를 이중 전공하고, 컴퓨터공학을 부전공으로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 ■ 성격 및 생활신조

·저는 꾸준한 사람입니다. 2년전부터 매일 오전 6시에 전화 영어로 아침을 시작했고, 5년 동안 일과 후에는 운동으로 마쳤습니다. 그 결과 영어는 외국인과 원활히 소통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올 연말에는 헬스 프로필을 찍을 예정입니다. 반복된 일상에도 pain 이 있으면 gain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움을 숙지하기 위해 어렸을 적부터 호주머니마다 메모지와 펜을 넣어두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꼼꼼한 습관 덕분에 주변에서 저를 많이 믿어주어 다양한 일을 경험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늘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실패의 두려움 보다 과정에서 얻는 교훈이 저를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대학 새내기 때 영국문화원 영어면접을 준비하면서 영어가 곧 기회의 폭을 넓혀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양한 봉사 활동, 홀로 떠난 두달 간의 미국 배낭 여행, 친구와 45일간 유럽여행, 각종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 20대가 할 수 있는 즐거운 모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친구들로부터 반전 이미지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 ■ 교내 외 활동

### · Young Climate Change Ambassador 글로벌 기후변화 홍보대사

(2011~2012 영국문화원 주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캠페인을 주도하는 활동을 1년간 했습니다.

지구환경과학 전공을 살려 전지구적인 환경 이슈에 관심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활동기간 중 중학생들에게 주말마다 영어로 환경 수업을 진행했고, 서울 코엑스에서 재활용품 활용 패션쇼를, 광화문 환경 캠페인, 전문가의 공개강의 개최 등 홍보대사 역할을 열심히 수행했고 20살인 저에게는 큰 보람의 시간이었습니다.

### · Korea University Buddy Assistant 고려대학교 교환학생 도우미 봉사단체

(2012~2013 & 2018)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싶어 KUBA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80명, 외국인 480명이 모인 큰 단체였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억에 남는 동아리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와 문화가 다른 또래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생각과 활동의 폭이 세계로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여행을 혼자 다니더라도 각국의 친구들이 있어 자신 있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해외 친구들과 소식을 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 · 학회장으로 활동한 FACILE (Facilitation학회)

(2016~2017) Facile 은 회의를 주도하여 아이디어의 발산, 공유, 정리, 수렴 방법 및 결론 도출을 위한 이론을 배우고 실습하는 학회입니다. 학회장이 되어 학회를 운영하고 키워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타대학교 퍼실리테이션 학회와 교류를 하였고, 전문 퍼실리테이터의 강의를 장학생 자격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학회원들의 역량을 키웠습니다. 또한 매주 이론 공부 후 실습하여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의의 준비에서부터 결론까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생활화 되었습니다.

## ■ 관심분야 및 희망 업무

· 어렸을 적 삼촌으로부터 처음 들은 ‘변리사’ 라는 직업은, 발명을 다루는 사람이고, 발명은 매년 새로운 것이니 도전을 좋아하는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장래희망’ 이 되어 왔습니다. 저의 성격을 바탕으로, 인커밍 업무, 선행기술분석, 무효 심판, 침해 소송 등을 위해 여러 명세서를 번역하고, 분석해서 정당한 권리자를 변리 하고 싶다는 희망을 키워왔습니다.

### · 4차 산업혁명 분야

2차 과목으로 회로 이론을 선택하였고, 이후 전자 변리사가 되기 위해 반도체, 통신, 컴퓨터 분야의 지식을 쌓아 왔습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인재가 되기 위해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수업 등을 들었습니다. 스타트업에서는 VR과 관련된 HW 및 UIUX 명세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딥러닝에 대하여 졸업논문 주제로 준비 중입니다.

### · 지식재산의 활용

지식재산권의 창출부터 소멸까지 변리사가 함께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리사는 누구보다 해당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치를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미래산업 분야의 발명을 세계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Licensing, M&A, 가치평가 등 IP financing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 인 하우스 경험 및 번역 과정 수료

스타트업에서 국내 출원을 준비하면서, 국내외 선행기술 및 레퍼런스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많은 명세서를 읽으면서 발명 분야에 대한 스터디 및 기술동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있었던 회사의 발명에 애착이 가 발명자들과 거듭 회의를 하면서, 우리 발명을 다방면으로 보호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회의를 할수록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에 일조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많은 발명자에게 특허의 필요성을 알리고 싶고, 나아가 제가 쓴 명세서로 인해 강한 보호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 세계 법률시장 개방과 준비된 인재.

법률시장이 개방된다면 해외의 유명한 로펌과 유능한 변리사들과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저의 능력을 키우고 있었으나, 이제 변리 경력을 쌓아 가면서 전문 분야를 키우고 싶습니다. 저의 비전을 함께하는 곳, 계속해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 경 력 기 술 서

근무 회사	(주)리얼감		소재지	삼성전자 R&D
근무 기간	2018.01.01~현재	근무 부서	특허, R&D 연구원	

**열정의 중심 st art u p 에서 해외출장 및 인 하우스 경험**

(주)리얼감은 가상현실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몰입감을 주기 위해 두개의 모터로 손목을 제어하여 저항감 및 타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았고, 실제 창업가들은 어떻게 지식재산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3번의 면접 끝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특허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사의 특허 현황을 엑셀로 정리하고, 경쟁사 특허를 조사하여 작은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특허가능성을 분석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였습니다. 기존 출원의 OA대응전략을 제시하였고, 인용 발명을 reference로 삼아 회피 전략을 세우고, 선행 기술을 추려 특허 사무소에 전달하고, 발명의 핵심을 넣어 다시 신규 출원을 하였습니다. 기계 분야는 처음 접하였지만 발명자 옆에서 질문하고 공부해가면서 발명의 이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발명자로부터 직접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개발하였고, 다른 발명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들으니 제 전공이 아니었지만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UI·UX특허 출원을 위해 특허전략원과 함께 하는 12주간의 IP R&D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8월 30일부터 일주일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 가전 박람회 IFA에 출장을 가 혼자서 회사 제품의 전시를 진행, 홍보, 상담하는 등 모든 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돌아해보면 저를 믿고 혼자 보낸 회사의 격려와 배려에 최선을 다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지원서 상의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10 월 1 일 성 명 : 김 가 빈 인